

‘정음문화원 청소년 수제천 연주단’ 창단

10월 국제민족음악교류제 수제천보존회와 공연 예고

정음문화원(원장 김영수) 수제천연주단과 수제천보존회(회장 이영자) 주관, 정음시 후원으로 제1기 청소년 수제천 연주단이 창단됐다.

이에 따른 창단식이 지난 14일 정음문화원 2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관계자들은 “천상의 소리’로 평가받고 있는 ‘수제천(壽齊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의 일환으로 초·중·고생으로 구성된 청소년 연주단을 창단했다”“앞으로도 수제천 보존 전승과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과 함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1기 청소년 수제천 연주단(이하 1기 연주단)은 모두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단원들은 현재 자신이 맡은 악기 교육을 받고 있다. 1기 연주단은 오는 10월 진행될 2018 국제민족음악교류제와 정기연주회에서 수제천보존회와 함께 공연할 예정이다.

수제천보존회는 관계자는 “이와 별개로 7월 2일~7일까지 열리는 카자흐스탄 민족음악관련악제에 초청돼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며 “앞으로 국제민족음악교류제를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국제중음악축제, 국제정악축제로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연주단의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 단체들과



정음문화원(원장 김영수) 수제천연주단과 수제천보존회(회장 이영자) 주관, 정음시 후원으로 제1기 청소년 수제천 연주단이 창단됐다.

협연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수제천(壽齊天)의 본 이름은 정음(井筒-빗가라 정음)이다. 수제천은 1970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회 유네스코 음악제에서 최우수곡으로 선정됐다. 당시 심사위원이 ‘천상의 소리가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 같다’는 평을 내린 바 있다. 수제천은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 ‘정음사(井筒詞)’의 반주곡으로 사용됐으나 현재는 관악 합주곡으로 연주되고 있다. 또 궁중 음악의 연례악과 처용무의 반주음악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정음=김대환 기자

갈촌중 전북대 대학원생, 중국 정부 ‘최우수 연구자’ 선정

전북대학교 대학원 갈촌중(Gejunong·기계설계공학과 박사과정)씨가 연구 분야 우수성을 인정받아 중국 정부로부터 최우수 연구자로 선정됐다.

중국 정부는 자국 출신으로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6만여 명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능력을 평가해 장학금을 6천 달러의 장학금을 주고 있다.

기계설계공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갈씨는 나노 복합소재 및 대체 에너지 분야에서 최근 3년 동안 SCI 저널에 제1저자로 8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또한 10회의 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 4월 10일 갈씨를 초청해 시상식을 갖고 상장과 연구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상민 기자

전주시, 열린어린이집 운영·참여방법 부모교육

전주시가 부모교육을 통해 어린이집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영유아를 돌보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섰다.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나림)는 13일 센터 교육실에서 전주시 지역 어린이집 학부모 5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어린이집 운영 및 참여방법’과 ‘가정 내 놀이환경’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모와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건강한 양육환경을 함께 조성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이해를 높이고,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결혼이주여성 기본법질서·생활법률 교육

전주시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신장과 한국사회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법률 이해를 돕고 나섰다.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지훈)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전주시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35명과 함께 김천 법교육문화센터를 찾아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법문화교육과 결혼이민자가 알아두면 좋을 기본법질서와 생활법률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결혼이민자가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 한국사회에 조기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한민국 기본법질서와 생활법률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돼 마련한 기획 프로그램이다. /김민근 기자

태인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행 보조기 지원

태인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거동불편 어르신 10명에게 보행 보조기를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재마을 이장 서우현씨도 개인 후원으로 5대를 어르신들(5명)에게 전달했다.

어르신들은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아 불편했는데 보행 보조기가 있어 한결 편해졌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서 위원은 매년 연말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는가 하면 매일 장애인복지관에 폐지고기를 후원하는 등 크고 작은 나눔에 앞장, 주위 귀감이 되고 있다. /정음=김대환 기자



장수군, ‘문화재로 찾아가는 장수학’ 프로그램 운영

장수군은 지난 13일부터 관내 초·중학교 학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내 고장의 지역문화유산에 대해 교육하는 ‘문화재로 찾아가는 장수학’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했다.

문화재로 찾아가는 장수학(총괄(사)아리울역사문화)은 초·중학교, 특히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를 대상으로 역사시대별 장수의 생활모습과 신광사, 장수향교 등 그 시기의 대표 문화재를 연관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써 보다 친숙하고 이해하기 쉽게 마련된 교육이다.

프로그램 운영은 관내 초·중학교 5개소를 대상으로 5회 동안 실시하며, 대상 학교에 전문 강사를 파견해 ‘신광사 지붕의 비밀’ ‘향교에서 노닐다’ 등 총 14시간의 이론, 현장 교육을 제공한다.

문화재로 찾아가는 장수학은 13일 장계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개강했으며, 올해 10월 말까지 운영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향교동 자율방범대 발대식

향교동 자율방범대는 지난 12일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다목적실에서 방범대원, 중앙지구대장, 자율방범연합회장 등 주요내빈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방범대 발대식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향교동은 인구가 8천여명의 인구가 밀집하여 지역의 치안유지를 담당할 자생단체인 자율방범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기존 향교동 자율방범대는 활동이 저조하여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직능단체 회원 43명이 자율방범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발대식을 개최로 향교동 자율방범대는 26명의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들로 새로이 구성되어, 향교동의 치안과 방범활동에 앞장서 내마음의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대식에 참석한 이신호 향교동장과 이동권 중앙지구대장은 축사를 통해 “향교동 자율방범대의 발대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자율방범대가 활동함에 있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8년 11월 25일 (월요일)
 등록번호 전북 7400016 (우)660912 전주시 영신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출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386-68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3-69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6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산지사 010-6645-9355	순천지사 256-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광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55	정읍지사 538-3787
	군산지사 010-6789-03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이션관

어드벤처 라이다관

5D 서클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다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권역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